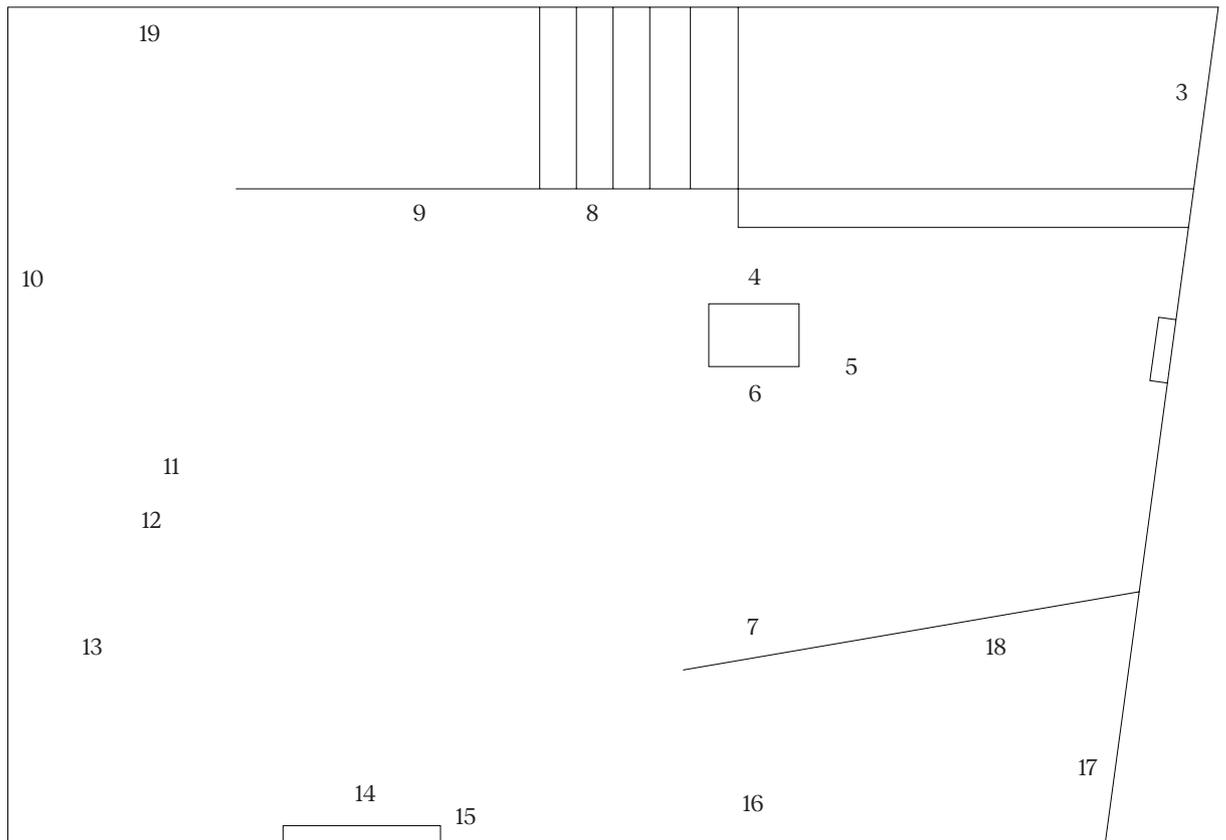


깊은 계단을 따라 오래 내려가면 낡은 방. 한 때 여길 데웠을 사람의 호흡, 온기, 소리, 사건, 감정, 낮과 새벽은 습에 무르고 한기에 뒤틀린 끝에 오늘의 구부정한 벽과 바닥이 되었다. 방 한 가운데 엎드려 굳은 식탁보 주위로 기묘하게 늘어진 식기와 살림이 군데 군데 놓이고, 묵은 간식과 천 조각, 목수건 따위의 잡동사니가 드문드문 빈 벽을 채운다. 하나같이 물기 없는 퍼석한 형상에 빛 바랜 듯 파리한 표면. 언뜻 닳은 방 안의 조각과 그림은 그러나, 서로 꽤 먼 곳으로부터 출발했다.

여기 놓인 조각은 '남은 것'을 되낸다. 쉽사리 잊히지 않고 스스로 의미를 갱신하는 장면들, 시간의 흐름에 스러지기보다 도리어 형태를 개편하며 존속하는 기억을 원정인은 반복해서 응시하고, 그 생김새를 더듬어 흙과 나무와 쇠 같은, 꼭 기억처럼 단단한 물성의 재료들로 조형해 왔다. '남은 것'들은 소금이 산화된 붉고 검은 얼룩으로(〈cloth.2〉, 〈stickers〉), 나뭇가지와 포장지가 눌러 찍힌 패턴과 돌기로(〈apart〉, 〈bystander〉) 도자와 철판 위에서 명징한 형상을 입고, 오래 머물 몸을 획득한다.

벽을 두른 흐린 그림들은 납작한 평면 아래 숨어드는 형상을 가까스로 붙든다. 닳은 듯 편편한 이 화면들은 소진과 쇠락을 부러 손수 앞당겨 얻은 그림들이다. 원민영은 마모를 회피하기 위해 매끄러운 새 필통을 친구의 낡은 필통과 바꾸었던 어린 날의 태세로, 관성처럼 캔버스를 빠르게 연마한다. 성긴 천 위에 안료를 얹고, 거둬 짜고 갈며 다듬어 선과 색, 면을 고르게 퇴색시켜 서둘러 현재를 소진한다. 공들여 쌓인 마모는 이 그림의 주요 언어가 되어, 흠결없는 표면을 이룬다.

둘은 시간을 당기고 밀며 이 닳은 방에서 계속 마모하고 있다.



Corridor

- 1 원민영, <Kitty>, 2025, oil on canvas, 24.2 × 24.2 cm
- 2 원정인, <Hanger>, 2024, ceramics, 가변설치

Room

- 3 원정인, <apart>, 2024, ceramics, 18 × 22 × 4 cm
- 4 원민영, <Every Miss Counts>, 2025, oil on canvas, 22 × 22 cm
- 5 원정인, <A used cup>, 2025, ceramics, steel, rust, 가변설치
- 6 원정인, <Stickers>, 2024, ceramics, 39 × 52 × 0.5 cm
- 7 원민영, <Don't Cry, Hankie>, 2025, oil on canvas, 45 × 45 cm
- 8 원민영, <The Blueberry Cake>, 2025, oil on canvas, 22 × 22 cm
- 9 원민영, <The Blueberry Cake>, 2025, oil on canvas, 22 × 22 cm
- 10 원민영, <It Could Be Tears>, 2024, oil on linen, 16 × 16 cm
- 11 원정인, <cloth.2>, 2025, steel, paint, rust, latex, 50 × 144 × 96 cm
- 12 원정인, <cloth.3>, 2025, steel, 185 × 242 × 120 cm
- 13 원정인, <A used cup>, 2025, ceramics, 가변설치
- 14 원민영, <The Shell and Two Bees>, 2025, oil on canvas, 12 × 45.5 cm
- 15 원정인, <A used cup>, 2025, ceramics, 가변설치
- 16 원민영, <The Muffler>, 2025, oil on canvas, 45.5 × 12 cm
- 17 원민영, <One of You Bit Me>, 2025, oil on canvas, 22 × 22 cm
- 18 원정인, <Hanger>, 2024, ceramics, steel, rust, 130 × 140 × 140 cm, 가변설치
- 19 원정인, <Stucked Hanger>, 2025, ceramics, wood, metal paint, paint, 가변설치